



외국인 수급에 대한 관심

1. 외국인 수급이 주도한 증시 반등

- KOSPI 지수는 6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연말 연초 부진을 모두 만회
- 8거래일 만에 약 1.9조원을 순매수해 12월 순매도 규모(1.7조원)를 모두 커버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역할
- 특히 바스켓 매매인 프로그램 순매수 비중 확대로 시장 전반에 매수 우위 경향 확산. 최근 장세는 알파 플레이보다 베타 플레이 장세라는 판단

바스켓 매매인 프로그램 순매수의 회복으로 거래소 시장 전반에 매수 우위 경향 확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매수 우위 이어질 전망

-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가치 상승)이 가장 중요한 배경요인 중 하나. 최근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컸던 점이 외국인 순매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일부 되돌림이나 변동은 있더라도 매수 우위 기조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 최근 원화가치 반등을 고려해도 KOSPI 지수는 2,150pt대 수준
- 외국인 지분율도 30% 수준으로 2010년 이후 하단에 가까운 상황

2H22부터 지속된 순매수에도 지분율 여전히 낮고, 최근 원화가치 상승을 감안해도 코스피는 2150pt 수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외국인 수급이 주도한 증시 반등

부진했던 연말 연초 이후 1/4일부터 KOSPI 지수가 6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일(1/11일) 2,359.5pt에 마감하며 약 3주 반 만에 지난 12/16일(2,360pt) 수준을 회복했다. 연말 연초 부진을 모두 만회한 셈이다.

반등의 주역은 외국인 투자자다. 8거래일 만에 약 1.9조원을 순매수했다. 12월 월간 1.7조원의 순매도를 상회하는 규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지난해까지 낙폭과대 업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폭과대, 1월 반등폭, 외국인 지분을 증가 상위 업종이 대체로 유사하게 확인된다.

또 한 가지 외국인 순매수의 특징은 프로그램 순매수 비중이다. 1월 약 1.9조원의 순매수 중 1.4조원 이상의 순매수가 바스켓 매매인 프로그램 매매로 유입됐다. 외국인의 한국증시 전반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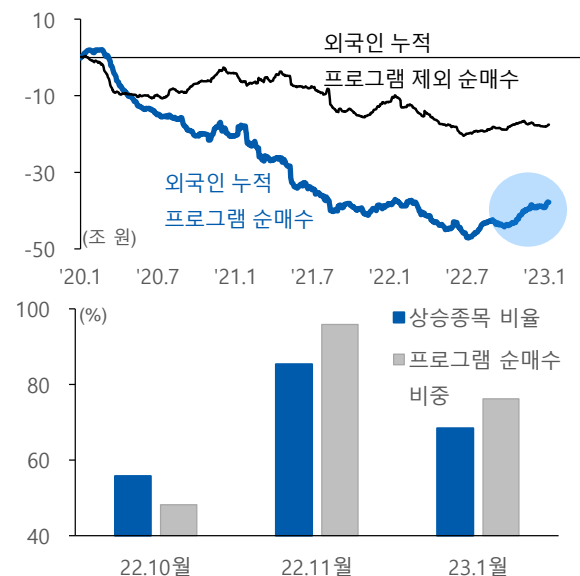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순매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증시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장세가 알파 플레이라기보다 베타 플레이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차트1] 연초 증시 반등은 대체로 낙폭과대 업종에서 발생.
외국인의 지분을 증가도 유사한 경향

순위	22.12월말 기준 고점대비 낙폭 순	낙폭(%)	23.1월 기준 월간 등락률 순	등락률(%)	23.1월 기준 외국인 지분율 증가 순	변화율(%)
1	소프트웨어	-58.4	은행	14.7	디스플레이	6.6
2	건강관리	-49.5	반도체	9.9	IT하드웨어	4.4
3	디스플레이	-43.7	자동차	7.2	은행	3.9
4	화장품, 의류, 완구	-43.2	소프트웨어	7.0	호텔, 레저서비스	3.5
5	건설, 건축관련	-43.0	증권	7.0	증권	3.4
6	운송	-42.9	건설, 건축관련	6.9	코스피	2.4
7	자동차	-41.8	IT하드웨어	6.1	소프트웨어	2.1
8	반도체	-39.7	IT가전	5.9	건설, 건축관련	2.1
9	미디어, 교육	-37.5	철강	5.8	자동차	1.2
10	철강	-37.3	코스피	5.1	보험	1.1
11	IT하드웨어	-36.2	디스플레이	4.9	운송	1.1
12	증권	-34.4	화학	4.3	철강	0.8
13	에너지	-34.1	기계	1.8	반도체	0.8
14	소매(유통)	-33.1	운송	1.8	조선	0.6
15	기계	-32.7	소매(유통)	1.3	화학	0.5
16	코스피	-32.3	화장품, 의류, 완구	1.2	에너지	0.4
17	IT가전	-31.7	호텔, 레저서비스	0.5	화장품, 의류, 완구	0.3
18	화학	-30.0	보험	0.4	상사, 자본재	0.2
19	조선	-28.9	통신서비스	-0.1	필수소비재	-0.1
20	은행	-25.3	상사, 자본재	-0.4	비철, 목재등	-0.1

자료: Quantwise(1/10),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바스켓 매매인 프로그램 순매수의 회복으로 거래
소 시장 전반에 매수 우위 경향 확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매수 우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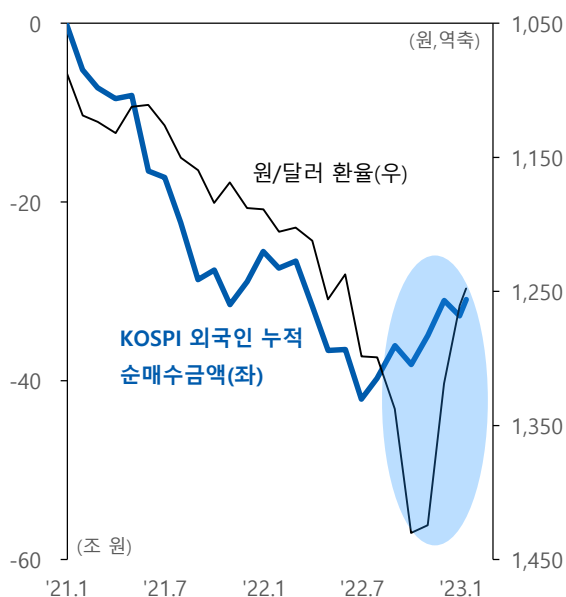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 유입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단연 환율일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며 장중에는 달러당 1,240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3분기 전후로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의 방향이 엇갈리기도 했으나, 이내 다시 동행하는 경향이 회복되며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최근 가팔라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매수 우위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지수의 하락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원화가치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KOSPI 지수는 2,150pt 수준으로 계산된다. 2019년말 수준에 불과하다. 즉 매수하기에 부담을 주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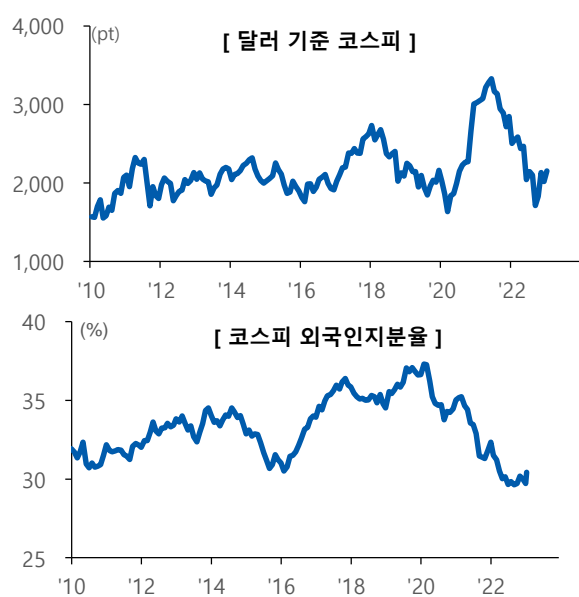
더군다나 KOSPI 지수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30% 수준으로 여전히 하단 부근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매수 우위가 유지되는 경우가 좀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는 판단이다.

[차트3] 핵심 요인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가치 상승). 4Q22부터 방향성이 일치하며 신뢰도를 높여가는 중



자료: Quantiwise,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2H22부터 지속된 순매수에도 지분율 여전히 낮고, 최근 원화가치 상승을 감안해도 코스피는 2150pt 수준



자료: Quantiwise,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